



한돈농가 교육 및 교류지원

2022년 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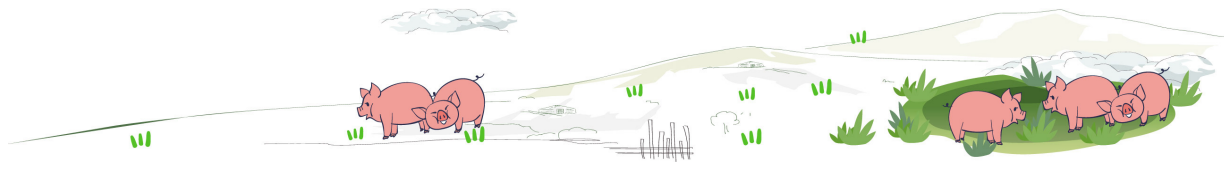
삼육 대한한돈협회



한돈자조금

차 례

I. 한돈협회 소식	1
1. 한돈농가용 푸시업 출시 및 필수설치 요청	1
2. 도별 청년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및 도별 청년대표 선출	3
3.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4
4. 제2차 한돈산업발전협의회 개최	5
5.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성과	5
II. 한돈협회 활동 사항	8
1. 도매시장 도축 수수료 지원 대응 사항	6
2. 2023년 외국인력 도입 계획 의견 제출	7
3. 냄새 처벌 일원화 관련(가축분뇨법 개정)	8
4.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대응	9
5.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 사항 취합 및 의견 제출	10
III. 논의사항	11
※ 별첨 : 1) 국내 ASF 발생 동향	
2) 돼지고기 수입 및 재고 동향 보고	
3) 도협의회 및 지부(회)장 이·취임식 식순	



I

한돈협회 소식

1 한돈농가용 푸시앱 출시 및 필수설치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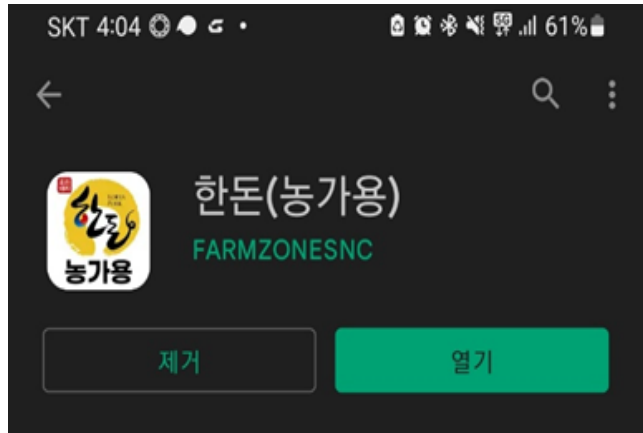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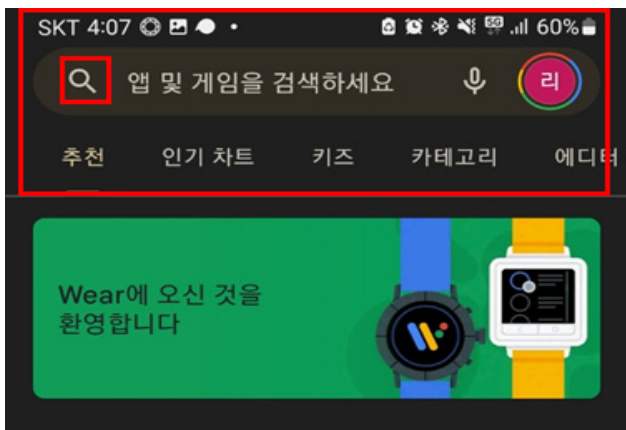
가. 목적 : 중앙회 신속한 정보전달과 중앙회와 협회원 간 상호 소통 강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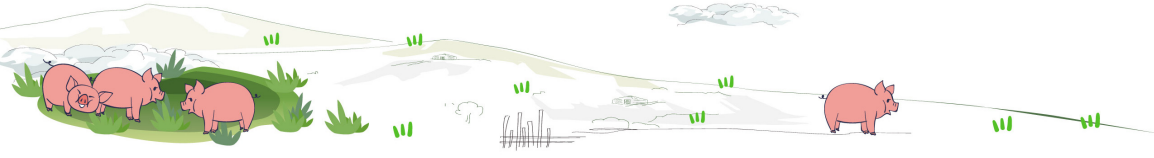
나. 도별 설치 현황 (22.07.26일 기준)

순번	지역	계	설치완료	설치율	비고
1	강원	164	125	76%	
2	경기	914	483	53%	
3	경남	468	276	59%	
4	제주	218	138	63%	
5	충남	782	420	54%	
6	충북	211	125	59%	
7	경북	481	307	64%	
8	전남	339	206	61%	
9	전북	345	186	54%	
계		3,922	2,266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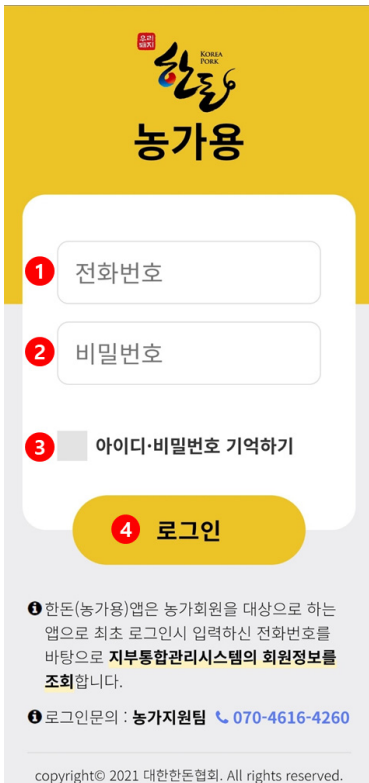
※ 시세 정보 문자 발송 중단(6월말) 한돈농가용 어플에서 시세 확인 가능

다. 다운로드 방법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 한돈농가용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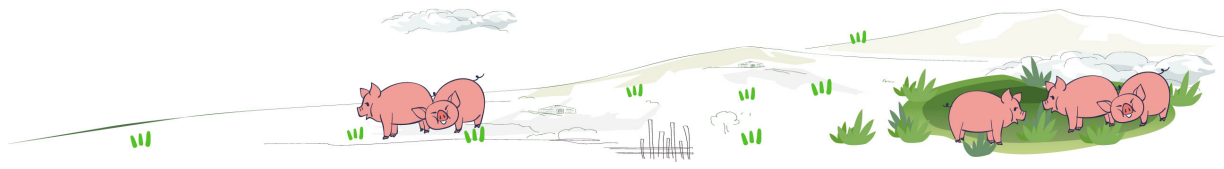


라. 로그인 정보 : (아이디) 휴대폰번호 / (비밀번호) 1234



◆ 게시판 목적 및 활용 안내

- 한돈협회 주요활동
 - 한돈산업 주요 이슈 알림
 - 협회 정책 건의 및 대응 활동
- 한돈협회 공지사항
 - 협회 주요 알림 사항
 - 지부 전달 사항
 - 긴급 알림 사항
- 한돈협회에 바란다
 - 중앙회에 바라는 사항
- 설문조사
 - 한돈산업 정책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비정기적 설문조사 실시
- 자료실
 - 각종 정책 자료 및 서식
 - 홍보 및 안내자료 게시



2 도별 청년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및 도별 청년대표 선출

□ 행사개요

○ 참석대상 : 지부별 청년한돈인, 도협회의장 및 지부(회)장

○ 주요내용

1) 청년한돈인과의 간담회

- 인력, 축산법, 8대시설, 사료, 청년지원대책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 진행
- 청년한돈인 애로사항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소통의 장

2) 도별 청년분과위원장 및 도집행부 선출

□ 도별 청년간담회 내역



〈충북(7/5), 이동운 대표 선출〉



〈충남세종(7/12), 이영기 대표 선출〉



〈경북(7/13), 한동윤 대표 선출〉



〈전남(7/14), 오양호 대표 선출〉



〈전북(7/19), 노건우 대표 선출〉



〈강원(7/26), 원광진 대표 선출〉

※ 미개최 지역 일정 협의 후 진행 예정

3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가. 추진목적

- 국내 농축산업 피해는 무시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수입축산물 무관세 강행 규탄 및 농가 사료값 물가안정 대책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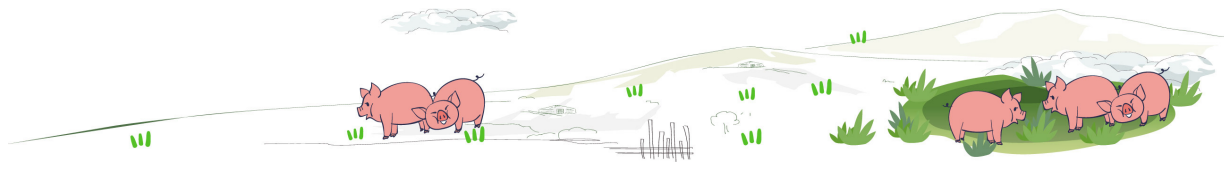
나. 추진경과

- (07.11) 정부 규탄 기자회견(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 정부 물가안정 명분 축산물 수입 장려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07.20) 긴급 축산 생산자 단체장 회의 개최
 -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한우협회 김삼주 비대위원장 추대)
- (07.25) 할당관세 반대 설명자료 배포



다. 추후계획

-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내 축산물 자급률 사수를 위한 축산인 총궐기 집회 추진(안)
 - 1) 대회명: '축산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 2) 일시 및 장소: 8월 11일(목) 13:30, 서울역 12번 출구 앞
 - 서울역 앞에서 본대회 후 삼각지역 앞까지 행진 예정
 - 3) 주요 요구 사항
 - 수입 축산물 무관세 방침 철회
 - 사료값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 생존 대책 촉구 등
 - 4) 참석인원: 한돈농가 1,000명 (총 참석인원 1만명 규모)



4 제2차 한돈산업발전협의회 개최

가. 추진 배경

-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 한돈 업계가 협업**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장 마련**

나. 추진경과

- (2022.04.05)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출범식 및 1차 간담회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논의
 -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한 핵심과제와 한돈 프리미엄화를 위한 제언
- (2022.06.28) 제 2차 한돈산업발전협의회 개최
 - 국제 곡물가격 폭등 및 국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한돈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등

5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성과

가. 추진경과

- **(대정부 건의)** 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지원인만큼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상 확대 지속 건의

나. 추진성과

- **(지원대상 확대)**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받은 농가나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경감 처분을 받은 경미한 경우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가능
- **(상환기간 변경)** 2년거치 일시상환 →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상자금 : 2022년도 사료구매자금, 특별사료구매자금
 - 신규 대출상품은 8.1일 이후 신청 가능

구분	기존	변경
특별사료구매자금(6/3)	9/2까지	9/30까지
하반기 사료구매자금(7/5)	9/30까지	10/31까지

- 8.1일 이전 대출자에 대하여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환 안내 문자 발송 예정, 만기시점 전까지 대환 심사 가능

II

한돈협회 활동 사항

1 도매시장 도축 수수료 지원 대응 사항

가. 추진 배경

- 정부는 최근 7월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대책’과 서민 물가안정대책으로 ‘삼겹살 할당관세 2만톤 추가증량’ 추진
- 이에 대한한돈협회에서는 계속되는 사료가격 인상,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 ASF 위협 등 심각한 상황에서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농가 피해를 가중시키는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를 요구함

나. 추진경과

- (2022.07.08) 할당관세 2만톤 추가·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 철회 성명서 발표
- (2022.07.13) 도매시장 도축비 지원 관련 긴급 업무연락 발송
 - 도축수수료 지원사업은 농가의 출하 비용 부담 완화 목적과는 달리, 도매시장으로 홍수출하 경우 돼지가격 폭락 우려되므로 비규격돈 도매시장 출하 자체 등 당부

적 인 생 략

업 무 연 락

(2022. 07. 13.)

수 신 : 각 도협의회 및 지부(회)

제 목 : 도축수수료 지원 관련 도매시장으로 신중하 돼지출하 당부

1.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한우·돼지 사육농가의 출하비용 부담 완화대책으로 지난 7월11일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서 마리당 2만원 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급변 도축수수료 지원사업은 농가의 출하비용 부담 완화라는 목적과는 달리, 도매시장으로 홍수출하가 이뤄질 경우 돼지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하비용 부담 완화보다는 전국 한돈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 이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최근 한돈농가들은 사육값 폭등으로 절반 이상이 폐업을 고민할 만큼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나, 나 하나가 아닌 전체 한돈산업을 고려하여 비규격돈 홍수출하 자체 등 신중한 출하를 당부드립니다. “끝”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성명서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1길 9, 3층(T. 02-581-9751 F. 02-581-9788) 회장 손세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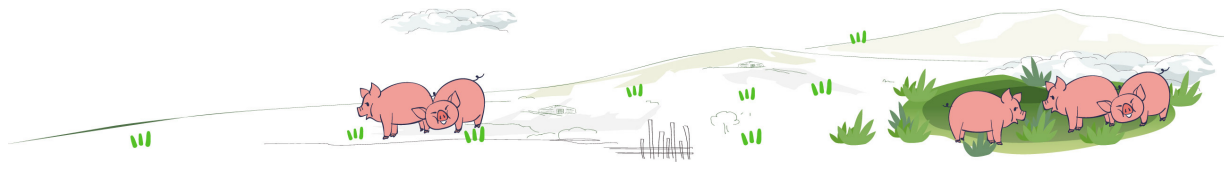
담당 유복남

할당관세 2만톤 추가·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 철회하라 인위적 도매시장 출하 유도는 돈가폭락 불려와 농가 피해 입힐 것 사육값 폭등으로 버랑 끝에 몰린 한돈농가 생존권을 보장하라

1. 정부는 최근 7월부터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대책’과 함께 서민 물가안정대책으로 삼겹살 할당관세 2만톤(생동1만, 냉동1만톤) 추가증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계속되는 사료가격 인상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ASF 위협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서민과 축산농가 부담 완화라는 목적과는 달리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농가 피해를 가중시키고, 소비자 권익은 없는 정책이라 판단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축산농가의 생산, 출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이라며, 7월 중순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마리당 2만원 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현재 도매시장에 경매되는 돼지는 일 전체 출하량 대비 5% 미만으로 도매시장 출하량 확대는 곧 경락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번 대책은 도매시장 수수료 시변을 통해 인위적인 중급 회대를 도매돼지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꼴수이다.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가격 폭등과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실제 수입되어 사용되는 옥수수가격은 2022년 5월 작년 1월 대비 70% 이상 상승했으며, 8월 이후엔 150% 이상 급등한 역대 최고 곡물시세가 전망되는 상황으로 이를 견디지 못한 농가의 하반기 도산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계속되는 사료가격 인상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ASF 위협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삼겹살 할당관세 추가증량과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으로 돈가가 폭락한다면, 축산농가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유통업계만 이익이 나는 양투구축(羊頭蝕) 양 머리를 걸어놓고 수익 고객에게 값싼 개고기를 속여서 파는 것의 농가 기반정착이 될 것이다.
4. 대한한돈협회는 삼겹살 할당관세 추가증량과 함께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은 인위적인 도매시장 가격하락을 유도해 한돈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인위적인 시장개입이자 기만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2022. 7. 8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2 2023년 외국인력 도입 계획 의견 제출

가. 추진 배경

- 코로나19 및 고령화 등으로 양돈장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돈협회에서는 한돈 농가의 외국인력 고용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돈장에서 필요한 외국인력수 산출

* 설문조사 : (조사기간) 7.14 ~ 7.18, (조사대상) 양돈장 463호

나. 건의사항

- 양돈규모에 따른 고용인력 현황 및 추가 필요인력 건의(약 5,500여명)

(단위 : m², 명, 개)

구분	500 ~ 999	1,000 ~ 1,999	2,000 ~ 3,999	4,000 ~ 5,999	6,000 ~ 7,999	8,000 이상	계
농가수*	2,528	2,344	675	174	116	105	5,942
규모별 평균 고용인원	3	5	8	10	20	30	
규모별 평균고용 외국인력 ¹⁾	1.00	1.15	2.05	3.45	5.95	8.85	-
농가당 소요인력 ²⁾	0.75	0.87	1.19	1.70	1.80	2.56	-
추가 외국 인력 소요 ³⁾	1,896	2,039	803	296	209	269	5,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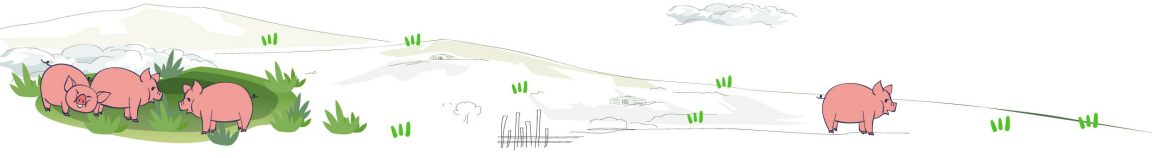
1) 농가당 고용중인 외국인력 수(한돈협회 설문조사 결과 반영)

2) 농가당 부족한 외국인력 수(한돈협회 설문조사 결과 반영)

3) 규모별 부족한 외국인력 수(농가당 소요인력 × 농가수)

※ 참고자료 : 가축동향(농가수), 한돈협회 설문조사 결과(조사기간 7.14~7.20)

- 양돈장 비전문취업(E-9) 신규고용허용 인원수 한시적 확대
- 계절근로자 배정분야에 축산업 추가
 - 축산의 경우 ASF, FMD 등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특별방역기간(매년 10월 ~3월)동안 계절근로자 배정 필요
- 숙련기능인력(E-7-4) 고용허용 인원수 확대
 - 농축어업의 상시근로자수 고려, 숙련기능인력 고용 허용인원수 확대
- 외국인근로자 근무장소 변경 신고 간소화
 -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 타지역 변경 경우, 단순 신고만으로 이동 허용토록 절차 간소화



3 냄새 처벌 일원화 관련(가축분뇨법 개정)

가. 현황 및 배경

- 현행 법령상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복합악취 15배)하였을 경우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며, 같은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처벌이 적용되어 현장의 양돈농가들이 많은 혼란이 발생됨.

□ 악취 배출허용 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 비교

내 용	악취방지법	가축분뇨법
근 거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3조	제17조제4항 및 시행령 제14조
위반내용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기간	개선명령 1년(6개월 이내 개선계획서 제출 및 1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 6개월 연장	개선명령 3개월, 3개월 연장
행정처분 및 행정형벌	개선명령 → 개선명령(연속초과 시 조업정지명령) → 조업정지명령(과징금 1억원 미만), 개선명령 위반 시 고발	개선명령(경고)→사용중지명령(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과징금 1억원 이하), 개선명령 위반 시 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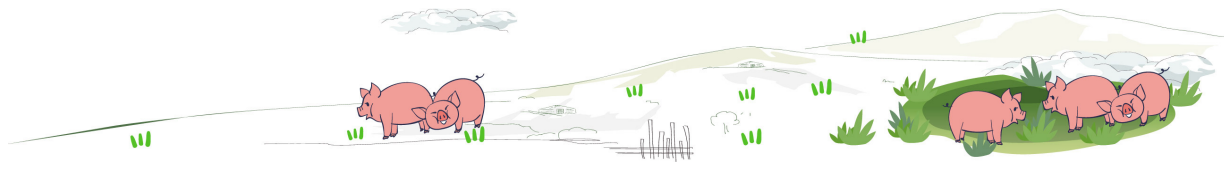
- 또한, 최근 일부지자체에서는 가축분뇨법을 적용하여 농가에 사용중지명령까지 명령으로 인해 농가의 재산권이 심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됨. 이에, 협회에서는 가축분뇨법의 냄새관련 제제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 할 것을 국회에 요구

나. 진행 경과

- 협회 건의 사항에 따라 악취처벌기준을 일원화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발의함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22.07.08)
- ⇒ 과태료를 제외한 제제 규정은 악취방지법에 따르는 것으로 법률 개정(안)마련

다. 향후 활동 사항

- 입법발의(안) 통과를 위해 대국회 활동 중점 추진
- ⇒ 환노위 주요 의원들 법률 개정사항 내용 설명 및 논의



4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대응

가. 현황 및 배경

- 농지에 음식물쓰레기 및 불법 원료가 함유된 퇴비가 유통 공급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퇴비의 관리 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이원택 의원등이 입법발의 (21.07.22)추진
- 하위법령 개정 중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단위면적당 최대 살포량(10a/3,750kg) 규정이 신설되어 액비의 경우 최대 살포량이 1ha당 37.5ton으로 제한되어 현장에서 액비 살포 중단 우려

나. 진행 경과

- 시행규칙개정 입법 예고에 따라 협회의견 제출(22.06.09)
 - ⇒ (협회 의견) 면적당 비료 최대살포량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발효액 적용제외 및 별도 최대 공급량 기준 마련 요구
- 면적당 비료 최대살포량을 시비처방서를 기준으로 하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표(22.07.20)
 - ⇒ (변경 전) 1ha당 37.5ton을 초과하는 경우만 시비처방서에 따른 살포량을 기준
→ (변경 후) 최대 살포량을 시비처방서에 따른 살포량으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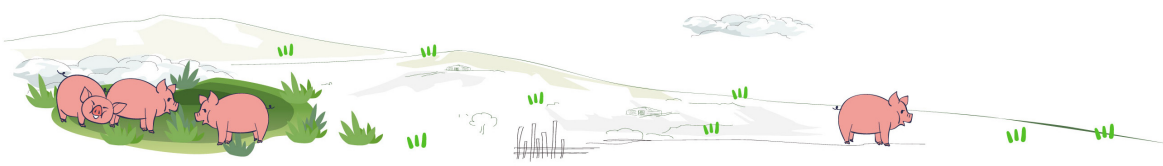
다. 향후 활동 사항

- 비료 종류에 따른 최대살포량 규정을 마련토록 개정 건의
 - 비료 종류에 따라 최대 살포량 규정마련(예시)

〈표〉 비료별 성분 차이

구분	화학비료(요소)	가축분퇴비	가축분뇨 발효액
질소함유량	45% 이상	1~2%	0.2%
1kg당 질소량	450g 이상	10g~20g	2g
10a(1,000m ²) 살포량	71.1kg	3,200~1,600kg	16,000kg

- 국회를 통해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의 경우 최대 살포 공급량 적용 제외토록 법령 개정요구



5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 사항 취합 및 의견 제출

가. 현황 및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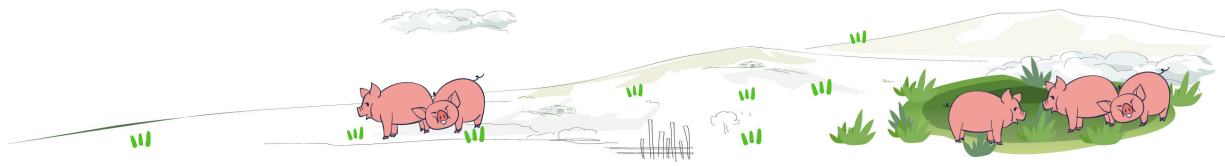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한돈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1차 축산발전심의위원회(서면22.07.07)에 의견 제출함.

나. 주요 내용

- 기록관리 업무 간소화
- 과도한 채혈 기준 완화
- 권역간 사료환적 조치철회
- 과태료 처분 정책지원사업 제한 완화
- 이력제 수집정보의 사용제한 강화
-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비용 현실화
- 악취방지법, 가축분뇨법 냄새처벌 일원화
- 가축분뇨법(퇴액비 이용 활성화) 개정
- ASF 거점소독시설 운영 개선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개선
-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신고 간소화
- 축사내 옥내소화전 설치 규정 개선

다. 향후 활동 사항

- 산업 현장의 불합리하고 문제있는 규제·제도 등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예정.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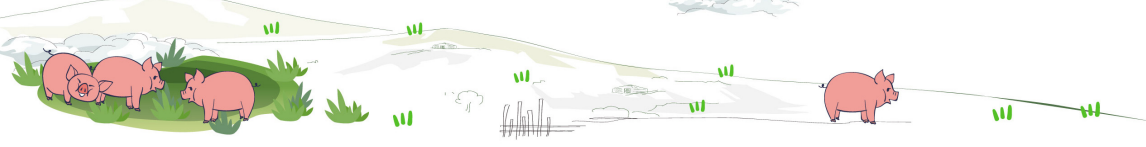
논의사항

1. 도협의회 주요 논의 안건

-

2. 건의 사항

-



별첨 1 국내 ASF 발생 동향(2022.07.26일 기준)

사육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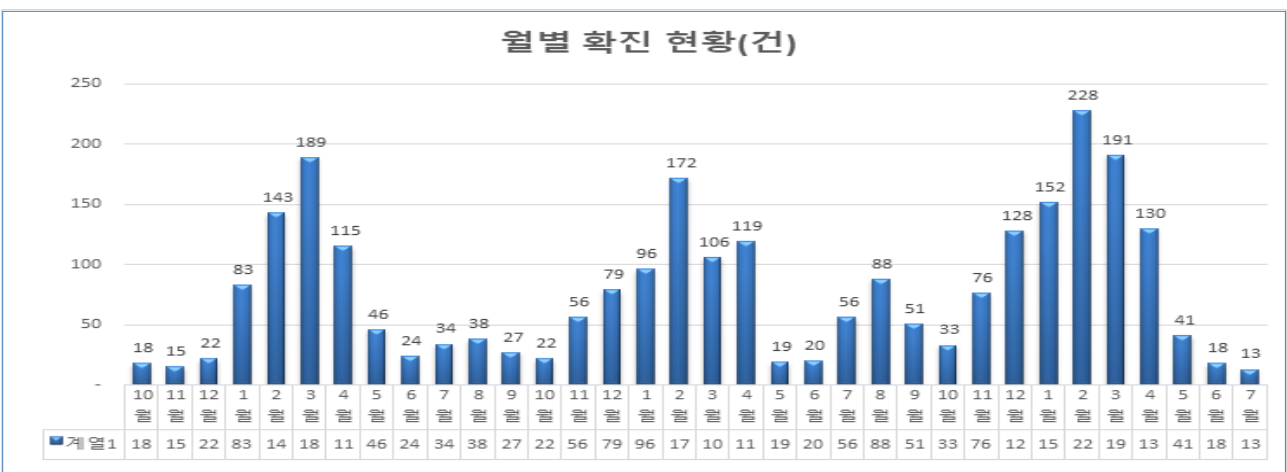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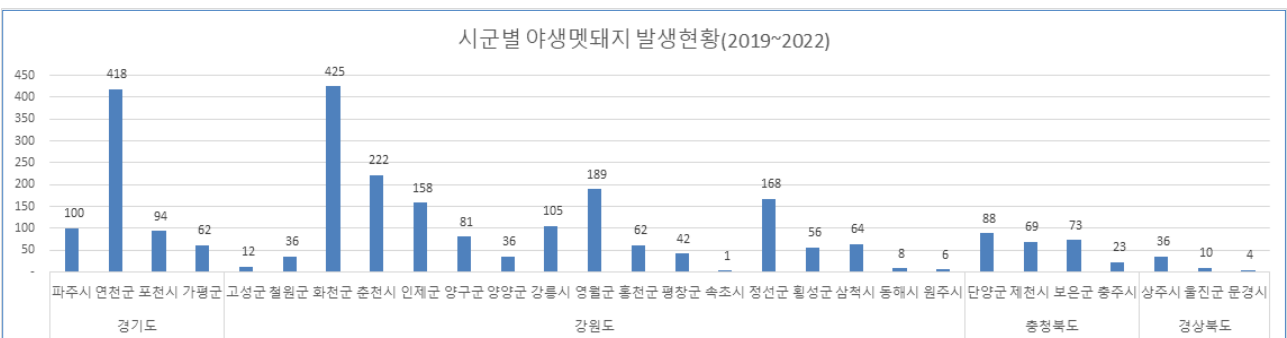
○ 9개 시군 총 22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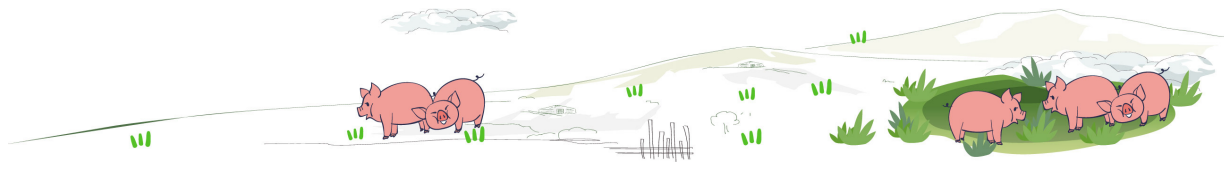
구분	경기				강원					계
	파주	연천	김포	강화	화천	영월	고성	인제	홍천	
2019	5	2	2	5	-	-	-	-	-	14
2020	-	-	-	-	2	-	-	-	-	2
2021	-	-	-	-	-	1	1	2	1	5
2022	-	-	-	-	-	-	-	-	1	1
계	5	2	2	5	2	1	1	2	2	22

야생멧돼지

○ 28개 시군 총 2,648건 확진

- (경기) 파주, 연천, 포천, 가평 (강원) 고성, 철원, 화천, 춘천, 인제, 양구, 양양, 강릉, 영월, 홍천, 평창, 속초, 정선, 횡성, 삼척, 동해, 원주 (충북) 단양, 제천, 보은, 충주 (경북) 상주, 울진, 문경





별첨 2

돼지고기 수입 및 재고 동향 보고(6월)

가. 수입현황(6월)

(단위 : 톤)

구 분	삼겹살	목심	갈비	뒷다리	앞다리	등심	기타	계
6월(A)	14,437	5,371	982	618	12,229	1,531	1	35,172
누적	93,403	35,743	5,747	7,360	85,746	8,344	216	236,560
전년(B)	16,393	4,764	472	0	10,040	831	3	32,503
전년대비(A/B)	↓ 11.9%	↑ 12.7%	↑ 108.1%	-	↑ 21.8%	↑ 84.2%	↓ 66.7%	↑ 8.2%

※ 출처 : 식약처,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발표시기 : 당해 월 물량을 월 3회(초순, 중순, 하순) 구분 발표

나. 재고현황(5월)

□ 국내산 재고량(5월)

(단위 : 톤)

구 분	안심	등심	전지	후지	삼겹살	목심	갈비	기타 (부산물 제외)	계
5월(A)	425	2,021	5,107	5,293	7,314	2,761	3,338	1,017	27,276
전월(B)	410	2,063	5,003	5,211	6,648	2,807	3,396	1,432	26,970
전년(C)	446	4,305	2,604	22,559	5,059	2,077	1,973	5,977	45,000
전월대비(A/B)	↑ 1.2%	↓ 2.0%	↑ 2.1%	↑ 1.6%	↑ 10.0%	↓ 1.6%	↓ 1.7%	↓ 29.0%	↑ 1.1%
전년대비(A/C)	↓ 4.7%	↓ 53.1%	↑ 96.1%	↓ 76.5%	↑ 44.6%	↑ 32.9%	↑ 69.2%	↓ 83.0%	↓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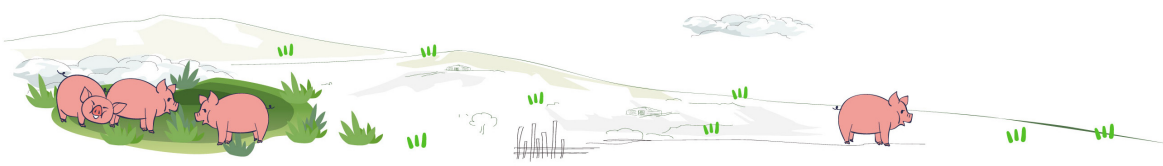
※ 출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발표시기 : 두 달 뒤 중순경 발표

□ 전체 재고량(5월)

(단위 : 톤)

구 분	구 분	삼겹살	전 지	기타 부위	부산물	계
5월(A)	수입	37,308	26,852	11,837	28,988	104,985
	국내	7,314	5,107	14,855	-	27,276
	소계	44,622	31,959	26,692	28,988	132,261
전월(B)	수입	36,203	26,441	12,242	28,483	103,369
	국내	6,648	5,003	15,319	-	26,970
	소계	42,851	31,444	26,129	28,483	130,339
전년(C)	수입	19,193	21,180	13,205	20,591	74,169
	국내	5,059	2,604	37,337	-	45,000
	소계	24,252	23,784	50,542	20,591	119,169
전월대비(A/B)		↑ 4.1%	↑ 1.6%	↑ 2.2%	↑ 1.8%	↑ 1.5%
전년대비(A/C)		↑ 84.0%	↑ 34.4%	↓ 47.2%	↑ 40.8%	↑ 11.0%

※ 출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 발표시기 : 두 달 뒤 중순경 발표



별첨 3

도협의회 및 지부(회)장 이·취임식 식순

1. 개 회
2. 국민의례
3. 주요 내빈 소개
4. 지부 연혁 소개 (생략가능)
5. 이임식
 - 이임 지부장 소개
 - 이임 지부장 및 임원 재직기념패 증정
 - 이임사
6. 취임식
 - 신임 지부장 / 임원 소개
 - 신임 지부장 인준서 전달
 - 약력 소개 (생략가능)
 - 협회 깃발 전수 (전임 → 신임자에게 전달)
 - 취임사 (신임)
7. 내빈 축사 및 기념사진 촬영
 - 내빈 축사
 - 기념사진 촬영
8. 폐 회

※ 전체 시나리오는 한돈협회 홈페이지(지부알림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